



암! 조기발견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 조기 발견 사례

- 폐 암...부산에 거주하는 강○○씨(여/59)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광역시지부에서 폐암 유소견 판정 후 메리놀병원에 입원 수술 예정이다.
- 간 암...대전에 거주하는 김○○씨(남/63)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전충남지부에서 간암 유소견 판정 후 충남대병원에서 간암 확진 받고 치료 중에 있다.
- 위 암...서울에 거주하는 조○○씨(남/72)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특별시지부에서 위암 유소견 판정 후 이대목동병원에서 암 확진 받고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다.
- 유방암...인천에 거주하는 이○○씨(여/52)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유방암 유소견 판정 후 인천의료원에서 유방암 확진 받고 수술 후 치료 중에 있다.
- 자궁암...거창에 거주하는 배○○씨(여/40)는 한국건강관리협회 대구광역시지부에서 자궁암 유소견 판정 후 경대병원에서 수술 예정이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시·도지부 5대 암 검진 현황 (2002년 3월 현재)

팔호 안은 암 확진자(단위: 명)

지부	계	폐암 의심자	간암 의심자	위암 의심자	유방암 의심자	자궁암 의심자	비 고
충 양	11(4)	0(0)	1(0)	5(1)	2(0)	3(3)	* 총 검사인원 189,834명
서 울	11(8)	0(0)	1(1)	4(2)	2(2)	4(3)	
부 산	67(21)	5(1)	12(4)	14(4)	10(3)	26(9)	
대 구	41(3)	7(0)	12(1)	18(1)	3(0)	1(1)	
인 천	7(2)	0(0)	1(1)	2(0)	1(1)	3(0)	
울 산	6(0)	0(0)	1(0)	4(0)	0(0)	1(0)	* 3월 검사인원 : 68,953명
경 기	39(1)	0(0)	18(0)	17(1)	4(0)	0(0)	
강 원	5(0)	4(0)	0(0)	1(0)	0(0)	0(0)	* 확진자 : 0.08%
충 북	5(2)	1(1)	1(0)	2(1)	1(0)	0(0)	* 의심자 : 0.5%
충 남	15(3)	3(0)	1(1)	6(0)	3(0)	2(2)	* 자궁경부암 확 진은 Class IV 이상
전 북	21(2)	10(0)	7(0)	1(1)	3(1)	0(0)	
전 남	37(4)	7(1)	3(2)	11(1)	10(0)	6(0)	
경 북	68(2)	3(1)	14(1)	26(0)	23(0)	2(0)	
경 남	11(3)	2(2)	4(0)	5(1)	0(0)	0(0)	
제 주	4(1)	1(0)	0(0)	1(0)	2(0)	0(0)	
총 계	348(56)	43(6)	76(11)	117(13)	64(8)	48(18)	
전 월계	219(27)	29(2)	61(2)	60(9)	45(7)	24(7)	
누 계	587(83)	72(8)	137(13)	177(22)	109(15)	72(25)	

위 암

○ 위암의 원인

소화기 계통의 암 중 위암이 한국이나 일본의 남자에서는 20%이상이다. 한국, 일본 등 아시아에 위암이 많은 것은 암 발생에 제일 중요한 생활 환경의 차이, 특히 식생활의 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추측된다.

음식물의 종류 중에서 어떤 음식물이 암을 잘 일으키는 가 하는 것은 논란이 많으나 대체로 짠 음식을 많이 먹는

사람에서 위암의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그 외에도 태운 음식이나 비타민 부족, 훈제된 식품, 방부제로 쓰이는 아질산염 등이 암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이중 비타민에 관해서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비타민 A가 실험적으로 항암 효과가 있고 비타민 C는 식품 내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한다는 보고들이 있기 때문이다.

고추 같은 매운 음식에 관해서는 아직 그 설이 많으나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멕시코에서 위암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보아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술과 담배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술을 많이 마시는 나라의 보고들을 보면 위암 발생과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유전적인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 위암의 증상

위암은 변화가 많아서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에서부터 격심한 통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위암의 증상이, 어떤 특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소화기 증상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암의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있더라도 경미하여 약간의 소화불량이나 상복부 불편감을 느끼는 정도이므로 건강한 성인, 특히 장·노년층의 건강하던 사람이 소화기 증상을 느끼게 되면 반드시 검진을 받아 보아야 한다.

위암이 진행되면 대개는 입맛이 떨어지고 체중이 감소되고, 상복부에 동통이나 불편감, 팽만감 등이 생기며, 원기가 쇠약해지고 의욕을 잃게 된다.

구역질은 위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인데, 위의 다른 질환에서는 구역이 나타나더라도 치료 후 없어지거나 그냥 두어도 며칠 내에 자연히 소실되지만 위암에서는 투약을 하더라도 호전이 없거나 며칠 후 재발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입구인 분문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워지거나 식후 즉시 구토가 나타나며, 동통도 명치에 국한되거나 가슴으로 방사되는 경우가 많다.

위의 출구인 유문부에 암이 생기면 음식물이 장으로 배출되는데 장애를 받기 때문에 위내에 음식물이 저류되어 상복부에 중압감이 심하고, 식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 구토가 일어나며 악취가 나는 경우가 많다.

위암의 호발 부위는 위하부에 많이 생기게 되며, 그 생기는 양상이 궤양형, 돌출형, 또는 침윤형 등이 있으며, 그 형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이 약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동소이하여 증상으로 구분되지는 않는다.

진행된 위암에서는 때로는 뱃속에서 종괴를 만질 수도 있으며, 출혈이 있는 경우 흑색 변으로 토혈을 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빈혈이 생길 경우 안면이 창백해지며, 빈혈에 의한 여러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또 병이 진행되어 간이나 기타 다른 장기로 전이 될 경우, 이로 인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복막으로 전이될 경우 복수가 고이게 된다.

◎ 위암의 치료

최선의 치료는 수술이다. 외과적인 절제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일단 완치를 목표로 하는 수술에서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를 포함하여 절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되었을 경우에는 근치 수술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때에는 항암제 투여 등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 유문부의 협착 등으로 인하여 환자가 음식물의 섭취가 어려울 때는 위 공장 문합술 등으로 환자의 영양 섭취를 가능하게 하는 보조적인 수술 요법을 시행하기도 한다.

약물요법으로는 항암제로 암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 방법으로는 완치를 기대하기 어렵고,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나 약간의 생존 기간을 연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위암의 일반적인 사용은 수술 후 재발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즉 수술 후 일정 기간 동안 항암제를 투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재발되는율이 투여하지 않는 환자에 비하여 낮다고 보고되고 있다.

◎ 위암의 예방

위암을 예방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나,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둬으로써 암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현재까지 알려진 위암과 음식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짠 음식이나 자극성이 심한 음식, 부패된 음식, 질소산화물이 많이 첨가된 음식은 삼가하는 것이 좋겠으며, 가족 중에 위암 환자를 가진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호발 연령이 되면 주기적으로 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조기에 병을 발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다. 

